

노시로 칠석

'칠석'은 중국에서 유래된 축제로 일본에서는 8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궁중 행사로 기념되었습니다. 에도시대 초기(1603~1867년)에는 전국적으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칠석(7번째 저녁'을 의미함)은 '별 축제'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별 베가(Vega)와 알타이르(Altair)를 나타내는 어느 두 신, 베를 잘 짜는 직녀와 소를 잘 치는 목동 견우에 얽힌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함께 있는 것이 기뻐 매일 해야 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지게 되었고 1년에 한 번, 7월 7일에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가와 알타이르는 음력 7월 7일경, 양력 8월 초에 두 별이 함께 하늘에 나타납니다. 현재 '칠석'은 전국적으로 7월 7일에 기념되고 있으나 지금도 8월에 기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칠석 행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식을 한 조릿대의 가지에 '단자쿠(短冊)'라고 불리는 형형색색의 종이 조각을 매달아줍니다.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단자쿠에 소원을 적습니다.

노시로시에서도 이 축제를 축하하기 위한 일련의 행사가 열립니다. 하이라이트는 8월 3일과 4일에 진행되는 '천공의 불야성'("Lantern Castles in the Sky" 하늘에 떠있는 성곽형 등롱)과 8월 6일과 7일에 진행되는 '노시로 네부나가시' (졸음과 함께 재난을 몰아냄) 두 개의 퍼레이드입니다. 노시로 네부나가시는 '야쿠타나바타(役七夕)'라고도 불리며, 여름에 잠을 방해하는 더위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질병 퇴치와 가을 풍년에 대한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두 행사 모두 거대한 일루미네이션 성곽형 등롱이 등장합니다. 윗부분에 샤치(몸은 잉어이고 머리는 호랑이인 상상 속의 동물)를 태운 성곽형 등롱이 악기 연주자와 소리꾼과 함께 거리를 행진합니다. '천공의 불야성'에는 17.6m의 '가로쿠(嘉六)'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성곽형 등롱으로 알려진 24.1m의 '지카스에(愛季)' 등 2개의 등롱이 등장합니다. 한편 '야쿠타나바타' 기간 중 지역별 그룹은 독자적으로 정교한 디자인의 등롱을 만듭니다. 8월 7일에는 샤치를 요네시로강에서 태워 흘러보내며 축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